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를 위한 건의(안)

의안 번호	43
----------	----

제안년월일 : '95. 10. 14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주 문

- 교통난 해소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입안중에 있으며
- 호남과 영동을 연결하는 지리적, 경제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오송역을 경부~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건설을 요망

2. 제안이유

- 국가 기간교통의 요충지로 호남~영동간 교류가 편리하고 중부권 및 영동 지역 개발이 촉진됨
-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첨단산업지대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다른 대안(천안,대전 등)보다 건설비가 절감되며 중부권 교통관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 별첨 건의(안)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를 위한

건의 (안)

재정경제원 장관

존경하는 건설교통부 장관님께

철도청장

교통개발연구원장

세계화의 물결속에 국가발전과 국토 균형개발에 진력하시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난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동량의 수송에 노심초사하시는 재정경제원 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교통개발연구원장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산업발달과 국민생활의 안정적 성장으로 교통량의 증가와 물동량의 증폭으로 인하여 국토 전체가 교통난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도로의 확장과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중에 있어 그동안 교통과 산업의 소외지역이었던 우리 도가 이제 교통과 산업의 중핵도시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온 도민은 중앙정부에 대한 감사와 커다란 희망에 차 있습니다.

재정경제원 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교통개발연구원장 님 !

그간 정부계획에 의하면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입안하고 그 출발기점 선정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 우리 도민들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고속철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을 기점으로 하여 호남 고속철도를 건설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전 도민의 뜻을 모아 간곡하게 건의 드리오니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우리 도는 국가 기간교통의 요충지입니다.

-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경부선,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 등 국가 기간철도와 연결되는 지역이며,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통과되는 고속도로의 중핵지대입니다.
- 오송역 연결로 호남-영동간 물류 비용절감으로 경쟁력이 제고됩니다.
우리도는 중부지역으로서 호남지역의 주민들이 영동 또는 영남지역 관광, 여행 등으로 이동하고자 할때 가장 이동시간과 거리가 단축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공사의 근간이 되는 시멘트 운송이

원활하여 물류 비용이 절감되며 체하기간이 단축되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청주국제공항 개항으로 세계 교통시대가 개막되고 육상 교통과 가장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둘째, 우리도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첨단 산업지대입니다.

- 오송신도시를 2,011년까지 2,000만평을 완공하여 30만 인구를 수용하고
-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를 2,001년까지 300만평을 개발하고 청주과학단지를 2,001년까지 286만평, 충주과학산업단지를 2,004년까지 200만평을 조성하여 첨단산업기지화가 이루어지며
- 지방 공업단지로서 11지구 302만평을 조성하고 주변 관광지 등을 개발하여 충북선 주변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며
- 현재 150만 인구가 2,001년 이후 300만으로 증가하여 배후 이용인구가 급증할 전망이다.

셋째, 오송역을 기점으로 할 때 건설비가 절감됩니다.

- 오송역을 기점으로 할때 논산역을 기준으로 천안역보다 20km가 단축되고

- 호남-경부, 호남-영동, 호남-서울등 연결이 용이하며
- 국제공항과 연결, 항공 교통과 육상교통의 연결로 철도 이용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으며
- 대전 지역보다 지가가 저렴하여 보상가 등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 대전권의 행정타운과 각종 첨단과학단지 (대덕연구단지, 오송의료과학단지, 청주·충주 첨단과학단지) 등과 연결하여 고속철도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도민의 뜻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1995. 10. 18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